

언론 사람

04

2020
VOL.238



04 인터뷰 人+人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06 Newmedia of the World

저널리즘을 위한
'소셜미디어 거리두기' 실천

08 세상사는 法

모두 다 같이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나가기를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초심을 간직한 후보를 찾습니다,
'정직한 후보'

CONTENTS

2020 APRIL

- | | | | |
|-----------|---|-----------|--|
| 04 | 인터뷰 人+人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 12 | 이달의 시
4월의 지리산 벚꽃길에 관한 명상 |
| 06 | Newmedia of the World
저널리즘을 위한
‘소셜미디어 거리두기’ 실천 | 14 | 단어의 중력
당다 |
| 08 | 세상사는 法
모두 다 같이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나가기를 | 16 | 내 마음의 활동사진
초심을 간직한 후보를 찾습니다,
‘정직한 후보’ |
| 10 | 돌보기
만남과 이별 | 18 | NEWS
위원회 뉴스
위원 동정 |
| | | 19 |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언론중재 |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권오근
발행일 2020년 4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코비즈 T 02-2272-1400
표지 작품 Mythja
<Beautiful Yellow Tulips>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
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
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
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
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
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
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삭풍의 끝을 알리는 한 송이 꽃이 피어올랐다.

추운 날씨에도 피고 눈 속에서도 피는 매화의 굳은 기개는
환란의 시대를 이겨내는 우리네 삶과 닮았다.

바람 따라 매화꽃 향이 코끝을 스칠 때
비로소 겨울이 끝났음을 알 듯,

저 언덕 너머 어딘가 새로운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언론인의 공지와 사명으로 저널리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허위조작정보의 범람과 언론의 신뢰도 하락으로 저널리즘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뉴스 수용자인 국민은 언론 보도를 불신하여 해외 언론의 보도를 확인하며 직접 팩트체크를 하기도 한다.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와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는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을 만나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올해 제47대 한국기자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한국기자협회(이하 '기자협회')는 1964년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서 창립됐습니다. 반독재·민주화운동투쟁에 앞장섰던 기자회견은 기자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1975년 동아투위와 조선투위가 결성되었을 때에도 기자회견 분회가 중심축 역할을 했죠. 1985년 5월 20일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에 맞선 기자들의 저항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 날을 기자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자 정신이 기자회견에 이어져 내려왔지만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언론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6년 전 세월호 참사 때는 '기레기'라는 아픈 말까지 나왔어요. 재임 중 언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기자들의 자존감을 회복해 우리 언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Q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A 언제부터인가 기자라는 직업이 하나의 직장인으로 바뀌는 느낌입니다. 과거에는 독자들을 계몽하고 나라를 바꾸는 지사 정신이 있었죠. 그런데 권력에 맞서 싸우던 언론이 언제부터인가 자본 권력에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자본에 언론이 매달리다보니 기자들의 자괴감도 커지죠. 그러면서도 언론사는 자꾸 늘어나요. 언론에 대한 고민과 철학이 없는 천박한 자본이 언론을 자기들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청운의 꿈을 안고 기자가 되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고 스스로 자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젊은 기자들이 이직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청년들이 기자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어렵게 언론사에 입사했는데 그 길을 스스로 포기할 정도면 그 자괴감의 깊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겁니다. 선배 언론인으로서,

같은 기자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Q 최근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차별과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A 최근 해외에서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언론이 나서서 예방하고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서로 지혜를 모아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 이슈가 많이 가려졌지만 이번 총선은 이러한 관점에서도 중요합니다.

기자협회도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보도준칙을 꾸준히 보완해 왔습니다. 보도준칙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살보도를 예로 들면 예전에는 어떻게 죽었는지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준칙을 마련한 이후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감소했죠.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던 지난 1월에는 PD협회, 언론노조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보도준칙을 188개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늘어나던 2월 셋째 주에는 취재 시 감염에 유의하자는 내용의 2차 보도준칙을 보냈고, 3월 3일에는 전체 기자들에게 코로나 관련 보도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론 분열을 선동하거나, 인권 침해 및 불안감을 조성해 공포를 유발하는 자극적 보도를 자제하자는 긴급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기자들 사이에서 재난보도준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Q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허위조작정보가 유포되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론계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언론이라면 사실보도의 전제 위에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사설이나 칼럼도 그렇죠. 그러나 유튜브에는 허위조작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 한 유튜브 채널에서 대통령이 신천지 회장과 악수하는 사진을 보여주어 이슈가 되었는데, 결국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죠.

이렇게 검증도 안 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채널도

66
좋은 보도,
도움이 되는 언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

구독자가 많은 이유는 우리 사회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자기 입맛에 맞는 뉴스만 찾기 때문입니다. 기존 언론을 통해서는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 듣고 쾌감을 충족하고 희열을 얻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가짜라고 밝혀져도 믿지 않게 됩니다. 기자협회는 이처럼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는 허위조작정보의 해결책으로 팩트체크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 토론에서 후보자의 발언을 바로 팩트체크해서 자막으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번 총선에서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좋은 방안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Q 기자협회는 다양한 언론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와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기회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A 물론입니다. 언론인들이 보도와 관련해 분쟁에 휘말리거나 기사작성에 있어서 법적 지식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 빈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기자들도 이러한 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과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언론진흥재단 수습기자 교육 등의 과정이 있지만, 중견 기자 등 현직 언론인에 대한 교육은 충분치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자회견도 2018년에 언론중재위원회와 공동으로 언론인 교육을 진행한 바 있죠.

당시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는 물론, 판례나 조정례 등 실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위원회 과정을 비롯해 기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이 더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언론사람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모두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무사히 코로나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게끔 기자협회는 사회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보도, 도움이 되는 언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널리즘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는 물리적 거리 확보를 통한 사람의 안전 확보가 주된 목적이다. 간극과 간격 그리고 격리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우리의 안녕을 담보하고 방역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급속하게 퍼져나가던 코로나19의 불길

이 잡힌 것도 따져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동참이 시발점이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역설적이게도 ‘소셜미디어 거리두기’(Social Media Distancing)의 실패를 불러왔다. 격리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셜미디어와의 간격은 좁아졌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포털 카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틈을 비집고 인간에게 더 가까이 들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셜미디어 거리두기가 반비례 함수임이 입증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셜미디어 거리두기가 교차하는 지점은 또 다른 위기가 발화하는 트리거 포인트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심리적 불안감이 심화되면서 소셜미디어의 화력은 배로 커졌다. 외롭기에 기대게 되고, 불안하기에 의존하게 됐다. 공업용 알코올을 들이마시다 27명 이상의 이란 시민이 사망한 사건이나, 따뜻한 소금물로 소독하다 수십 명의 집단감염을 일으킨 어떤 교회의 사건도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셜미디어 거리두기의 교차점에서 발생했다. 기껏 거리두기에 성공하고도 몇 차례의 소셜미디어 거리두기에 실패하면서 이런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뉴스 거리두기’(News Distancing)도 실천이 어려워지긴 마찬가지다. 인간은 좋은 정보보다 나쁜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를 ‘부정 편향’이라 한다. 부정 편향은 인간의 보호 본능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진화한 인지 편향의 한 유형이다. 공포, 불안, 자극 등 부정적인 뉴스에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심리학은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보다 더 강하다’는 테제를 지금껏 부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뉴스가 인간의 부정 편향을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지도 않은 지옥문이 열리며, 드러나지도 않던 디스토피아가



‘소셜미디어 거리두기’ 실천



도래하는 등 온갖 종류의 공포스런 뉴스가 우리의 몰입을 유혹한다. 길거리를 걸어 다니기만 해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건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뉴스도 다르지 않았다.

이처럼 대부분의 뉴스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부정의 기운을 먹고 야금야금 성장 중이다. 뉴스의 총량도 늘어났고 소비 시간까지 증가했다.

부정적 뉴스는 언론사를 살찌우지만, 인간의 건강을 갉아먹는다. 오죽하면 부정 편향이 유발한 스트레스가 감염에 대한 저항성마저 떨어뜨린다는 논문까지 발표됐을까. 로프 도벨리(Rolf Dobelli)의 저서 ‘뉴스 다이어트’가 지금 시점에 출간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가 강조하듯, 뉴스 다이어트는 몸과 정신을 ‘실제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더 이상 선택으로 남아서도 안 될 시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인간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뉴스의 거리를 좁혀냈다. 허위정보에 대한 의존성을 높였고 불안감을 부추기는 뉴스에 몰입하게 만들었다. 소셜미디어와 부정적 뉴스의 절묘한 교합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반감시키는데 일조했다.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기껏 벌여놓은 시간을 ‘미디어 연합군’이 까먹는 안타까운 오늘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소셜미디어 그리고 뉴스와 거리두기는 저널리즘과 대척점에 있지 않다. 오히려 저널리즘의 본질과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역설적 해법이다. 광고 벌이에 나선 루머 생산자들, 트래픽 벌이에 나선 부정적 뉴스 공급자들에서 적정 거리만큼 떨어져 본래의 긴 호흡을 되찾자는 저널리즘 운동이다. 맥락이 담긴 두툽한 진짜 정보에 시간과 주의를 할당함으로써 정보 흐름의 적정 호흡을 재발견하자는 제안이다. 탐사보도와 해석 저널리즘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코로나19를 저널리즘 가치 회복을 위해 자연이 선사한 귀중한 시간으로 재해석해볼 필요가 여기에 있다. 메르스 때는 실패했지만 코로나19 때는 달라야 한다.

모두 다 같이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나가기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이 불편하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부대끼는 생활을 하게 되자, 워킹맘으로 조율해온 일상의 균형에도 문제가 생겼고, 더구나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불편함이나 답답함 정도의 감정 토로가 이 시기를 힘겹게 지내고 있을 어떤 분들에게는 사치임을 알고 있다). 다만 이 와중에 유일하게 좋다고 여겨지는 점 한 가지는 애들이 계속 저희들끼리만 집에 있다 보니, 싸우지 않고 노는 법을 점점 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누나는 눈 씻고 찾아봐도 놀 친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인형을 버리고 로봇과 자동차의 세계에 본격 입문하였다.

‘피붙이끼리 잘 노는 것이 당연한데, 뭐 저런 것을 감상이라고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너무 싸워서 내가 집을 나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게 불과 얼마 전이니, 단시간에 이룬 장족의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이 사태를 겪으며 ‘위기는 공동체를 더 강하게 결속시킨다’는 오래된 진리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이 오래된 진리는, 더 큰 규모의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우리나라 자원봉사자들이 격리대상자에게 먹거리가 든 박스를 전



달하고, 격리대상자의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주는 등의 영상이 화제가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또 전국 각지에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며 십시일반 성금을 모으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도 정말로 엄청난 희생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강해진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고, 또 다행스럽다고 생각한 순간들이 많았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끼리 결속하는 것이 자칫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의 바깥에 있는 ‘타자’에 대한 배척이 되고 있지 않은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가령 어떤 기사에서는 중국 이주민 밀집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시장 일부 사람들이 침을 땅에 뱉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며 위생 불량이 심각하다고 기사를 내보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기보다 프레임 설정한 뒤 작성한 기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테면, 침을 땅에 뱉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은 압구정동에도 많이 있지만, 대림동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 기사화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이다.

비슷한 맥락의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다. 얼마 전에는 금천구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코로나로 확진되었다고 기사화되었다. 과연

누구도 배척되지 않고,
또한 배척되는 기분을 느끼지 않고,
‘모두 다 같이’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나가기를.

‘중국인’이라는 확진자의 국적이 지금 시점에 필요한 정보였을까. ‘확진자의 동선’이나 ‘접촉자에 대한 정보’는 예방 차원에서 공공성이 있는 정보일 것이다. 하지만 ‘중국인’이라는 정보는 전염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 보인다. 오히려 지금 시기에 중국인 및 중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혐오를 높이는 정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감염병 대응에 가장 필요한 건 공공성”이라며 “감염병 확산 시기에 언론은 민간 영역이 아니라 공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2012년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한국헬스 커뮤니케이션학회 공동으로 감염병 보도 원칙을 제정했는데, 그중에는 ‘감염인의 신상에 관한 보도는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고, ‘감염인에 대한 보도는 환자 및 감염자,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감염병 보도에서 어떤 정보가 취사선택되었는지에 따라,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 감염병 확산 시기에 국민들은 더욱더 미디어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언론이 흘리는 특정 국적이나 인종, 지역에 대한



불필요하고 부정확한 정보는 혐오에 매우 취약하다.

위기가 닥쳤을 때 내부 결속을 공고히 하는 한편, 외부에 공동의 적을 만드는 것은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일견 효과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적을 만드는 일’은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 겨누는 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내년 정도까지는 해외여행 가는 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시글을 보았다. 이유는 유럽 등 서구에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 동양인 혐오가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뉴욕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감염병은 본질적으로 불안감과 타자에 대한 배척감을 불러오기 쉽다.

이럴 때일수록 정보제공자는 무엇이 공공성을 가진 정보인지 고민하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와 알 필요가 없는 정보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시간을 누구도 배척되지 않고, 또한 배척되는 기분을 느끼지 않고, ‘모두 다 같이’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나가기를.

만남과 이별

초초견우성(迢迢牽牛星)

아득히 먼 견우성

후한(後漢) 무명씨(無名氏)

迢迢牽牛星, 皎皎河漢女. 초초견우성 교교하한녀
아득히 먼 견우성, 밝게 빛나는 직녀성.

纖纖擢素手, 札札弄機杼. 섬섬탁소수 찰찰농기저
섬섬옥수 하얀 손을 들어, 찰각찰각 베를 짠다.

終日不成章, 泣涕零如雨. 종일불성장 읍체영여우
종일토록 문양을 갖추지 못함은, 흐르는 눈물이
비 내리듯 하기 때문이다.

河漢清且淺, 相去復幾許. 하한청차천 상거부기허
은하수는 맑고도 얇으며, 서로의 거리가 또 얼마
되겠는가.

盈盈一水間, 脈脈不得語. 영영일수간 맥맥부득어
반짝이는 물길 하나 사이에서, 간절히 바라볼 뿐
말을 할 수 없네.

중국의 시문 선집인 《문선(文選)》에 편입되어 전해지는 <고시 십구수(古詩十九首)> 가운데 열 번째 시이다. <고시십구수>는 후한 말엽에 완성되었는데, 작자가 밝혀져 있지 않고 제목이 없어 19수 모두 첫 구절을 제목으로 삼았다. 그 특징은 소박하고 청신한 시어로 사랑과 이별, 인생무상에 대한 한탄, 혼란한 사회에 대한 비분 등을 그려낸 점을 들 수 있다. 후대의 비평가들이 이 시들에 대해 호평을 남겼으니, 남조 시기 양(梁)나라의 종영(鍾嶸)은, “문장이 온화하면서도 아름답고, 뜻이 슬프면서도 심원하여, 마음을 놀라게 하고 넋을 뒤흔드니 한 글자마다 천금의 가치가 있다고 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초초견우성>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만나지 못하는 견우와 직녀의 사랑과 그리움을 읊은 시이다. 하늘나라의 목동인 견우와 옥황상제의 손녀인 직녀는 결혼한 뒤로 사랑에 빠져 말은 일에 소홀하게 되었다. 이에 옥황상제는 벌을 내려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견우는 동쪽에, 직녀는 서쪽에 떨어져 살게 했다. 이들은 건널 수 없는 은하수 너머에서 서로 그리워하다가, 1년에 딱 한 번 음력 7월 7일의 칠석에 만날 수 있다. 까마귀와 까치들이 칠석날에 이들의 만남을 위해 하늘로 올라가 다리를 놓아 주니, 바로 오작교(烏鵲橋)다. “은하수는 맑고도 얇으며, 서로의 거리가 또 얼마 되겠는가. 반짝이는 물길 하나 사이에서, 간절히 바라볼 뿐 말을 할 수 없네.”라고 읊었듯이, 보기에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초초(迢迢) : 아득히 먼 모양.

찰찰(札札) : 베 짜는 소리

영영(盈盈) : 물결이 반짝이는 모양

맥맥(脈脈) : 감정이 눈에 어린 모양



있으면서도 만날 수 없으니 더욱 애절하다.

우리는 일생에서 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는다. 만남은 그러나 이별의 전제 조건이다. 만남이 없으면 이별도 없기 때문이다. 사실 긴 시야에서 보면 만남이 이별이고 이별이 만남이다. 우리가 ‘이별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이(離)’자는 본래의 뜻이 그와 반대인 ‘걸리다’, ‘만나다’이다. 글자의 구성을 보면 ‘이(離)’자의 앞부분은 자루가 달린 그물망이고, 뒷부분은 꼬리가 짧은 새이다. 자루가 달린 그물망으로 작은 새를 잡는 모습에서 ‘걸리다’, ‘만나다’라는 뜻이 되었다. 나아가 만남이 있어야 이별의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떠나다’, ‘이별하다’의 뜻이 나왔다.

《주역(周易)·이괘(離卦)》에서도 이괘(離卦)의 의미는 ‘걸리다’, ‘만나다’라는 본래의 뜻으로 풀이된다. 정이(程頤)는 그 풀이에서 “왕성하면 반드시 쇠퇴함이 있고, 시작하면 반드시 끝남이 있는 것이 한결 같은 이치이다.(盛必有衰, 始必有終, 常道也)”라고 하였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것이 만고불변의 이치이니, 이별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 것이다. 어느 선각자가 이미,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였듯이, 이별은 또한 만남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별의 시로는 우리나라에도 <임을 보내며[송인(送人)]>라는 한시가 전해진다. 12세기 고려 인종 때의 문인인 정지상(鄭知常)의 작품이다.

雨歇長堤草色多,

비 그친 뒤에 긴 강둑은 풀빛이 짙는데,

送君南浦動悲歌.

그대 보내는 남포에는 슬픈 노래가 울린다.

大洞江水何時盡,

대동강 물이 언제 마르겠는가,

別淚年年添綠波,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해지니.

이별의 눈물이 강물에 더해지니 대동강의 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별의 아픔을 비유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간절함을 더하고 있다.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비가 내리고 풀빛은 짙어졌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에 이별을 맞이한다는 것은 더욱더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런 이유로 다음 3,4구의 비유가 과장이 아닌 실감으로 다가온다.

정지상의 시가 이별의 과정을 겪고 있는 시인의 정서를 묘사하였음에 비해, <초초견우성>은 이별한 뒤에 서로 그리워하는 모습을 그렸다. 의경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별로 인해 겪는 아픔은 마찬가지이다.

또 다른 면에서 보자면, <임을 보내며>에서는 재회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나, 견우와 직녀는 그래도 일 년에 한 번은 만날 수 있다. 만남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고, 또 반드시 만난다는 확신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4월의 지리산 벚꽃길에 관한 명상

쌍계사 십 리 벚꽃

고두현

쌍계사 벚꽃길은 밤에 가야 보이는 길
흘날리는 별빛 아래 꽃잎 가득 쏟아지고
두 줄기 강물 따라 은하가 흐르는 길

쌍계사 벚꽃길은 밤에 가야 빛나는 길
낮 동안 물든 꽃잎 연분홍 하늘색이
달빛에 몸을 열고 구름 사이 설레는 길

쌍계사 벚꽃길은 둘이 가야 보이는 길
왼쪽 밑동 오른쪽 뿌리 보듬어 마주 잡고
갈 때는 두 갈래 길, 올 때는 한 줄기 길

꽃 피고 지는 봄날 몇 해를 기다렸다
은밀히 눈 맞추며 한 생을 꿈꾸는 길.

- <달의 뒷면을 보다>(민음사, 2015)에서

바야흐로 벚꽃의 시간입니다. 벚꽃이 필 때면 다른 꽃들은 잠시 주변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벚꽃의 전경화(Foregrounding)를 위하여 다른 꽃들의 후경화(Backgrounding)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 지구별의 꽃들은 모두가 제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꽃들이 자신만의 숨겨진 진면목을 드러내는 방식은 참으로 다채롭습니다. 꽃과 나무를 사랑하고 관찰하는 데 놀라운 안목과 마음을 갖고 살았던 법정(法頂) 스님은 '매화는 반만 피었을 때 보기가 좋고, 벚꽃은 활짝 피었을 때 볼 만하고, 복사꽃은 멀리서 바라보아야 환상적이고, 배꽃은 가까이서 보아야 자태를 알 수 있다'고 '꽃의 사생활'을 법문 속에서 인상 깊게 들려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이 아니더라도 꽃과 나무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꽃들과 만나는 사적인 비밀이자 방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실로 이 세상에서 꽃만큼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는 매혹적인 생명체도 달리 없습니다. 꽃 앞에서 우리는 화를 낼 수가 없고, 꽃이 피는 데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으며, 꽃밭을 거닐면서 우리는 가난한 표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꽃은 강력한 생의 에너지이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저 남쪽의 지리산에 가 보셨는지요? 그 무던하고 후덕한 지리산에 들어서면 누구나 오래 달인 탕약을 먹은 것처럼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산의 여유가 넘치는 허리둘레도, 뿌리 깊은 봉우리들의 원만한 조화로움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방심에 가까운 안심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리산의 명소 가운데 '쌍계사 십리 벚꽃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지리산을 장식하는 문채(文彩)와 같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시적이며 미학적인 세계입니다. 여기서 길은 목적지에 이르는 수단이 아니라 과정 전체를 향유하는 도정입니다.

고두현(1963~) 시인은 이 길을 보고 우리가 이달에 함께 읽고 있는 작품 <쌍계사 십리 벚꽃>을 창작하였습니다. 두 편의 연작 가운데 우리가 읽고 있는 작품은 두 번째 작품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는 여기서 쌍계사 벚꽃길을 다양하게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대로 열거해보면 '그 길은 밤에 가야 보이는 길이며, 꽃잎이 가득히 쏟아지는 길이고, 두 줄기 강물에 은하가 흐르는 길이며, 밤이라야 빛나는 길이고, 연분홍 하늘이 설레는 길이며, 둘이 가야 보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인간의 한 생을 꿈꾸게 하는 길'입니다.

길에서 이런 사색과 만남이 가능하다면 그 길은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정신적이며 우주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벚꽃길이 어디 쌍계사 벚꽃길만이겠습니까? 이 땅의 곳곳에는 물리적인 길을 넘어 서게 하는 수많은 벚꽃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디 벚꽃길뿐만이겠습니까? 다른 나무나 꽃들로 장엄된 길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 쌍계사 벚꽃길은 정신적이며 우주적인 길의 한 상징이자 은유입니다. 그렇더라도 지리산의, 섬진강으로 흘러드는 쌍계의, 벚꽃으로 장엄된, 십리나 되는 이 길은 지리산과 쌍계와 벚꽃과 십리의 거리가 어 울려서 빚어내는 색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나 밤이면 더욱 신비롭고 환하게 밝아지는 봄날의 벚꽃을 중심으로 새롭게 탄생된 지리산 쌍계사 십리 벚꽃길은 자연사가 빚어내는 놀라움 앞에서 인간들이 만나는 천지인(天地人)의 신비와 속뜻을 보게 합니다.

참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맞이한 이 땅의 4월이고 봄날입니다. 고두현 시인이 들려주는 벚꽃길에 의지하여 잠시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닿 다

이제 너는 닿음을 그리워한다.

만남의 포옹, 이별의 키스,

심장을 파고드는

상처의 애절함을 꿈꾼다.



룸메이트가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너는 비로소 그의 빈자리를 느꼈다. 새벽 두 시, 어둠 속에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룸메이트가 너의 공간에 존재할 때도, 그 시간은 소란하지 않았다. 다만 누군가의 기척을 느낄 수 있었다. 벽 하나 너머에서 숨 쉬는 생명의 기척, 잠이 든 생명의 기척,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생명의 기척이었다. 지나치게 예민한 너는 그 기척이 가끔 불편했다. 네가 아닌 다른 생명이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기 위해. 이불을 뒤집어쓰고 백 마리의 양을 세기도 했다.

그래서 그가 떠난 첫날과 둘째 날 밤, 너의 영혼은 푸른 풀밭을 마음껏 달리는 사슴처럼 평온했다. 아주 오랜만에, 너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았다. 상쾌한 아침이 돌아오고 샤워를 하기 위해 목욕탕 문을 열었을 때, 너는 김이 서려 있지 않은 깨끗한 유리를 발견하고 낮은 탄성을 발했다. 주방이나 거실을 서성거리는 발자국 소리, 문이 열고 닫히는 소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에 잠겨, 너는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초롱초롱한 물방울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는 일 년 동안 너의 룸메이트였지만, 너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그를 맞아들인 건 칠 년을 함께 지냈던 연인과 헤어졌기 때문이었다. 너 혼자 집세를 감당하는 것은 무리였지만 너는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네가 살고 있는 건물 바로 옆집에서 풍기는 고소한 빵 냄새,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작은 도서관, 다정하고 아늑한 시장 골목길을 포기할 수 없었다. 몇 안 되는 네 친구 중 한 사람이 네 사정을 듣고, 친구의 친구를 소개해주었다. 너는 옛 연인이서 재로 사용하던, 그러나 책을 읽기보다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다른 여자들과 비밀통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던 방을 정리했다. 책과 옷가지와 가구를 내다 버리고 벽지를 새로 하고 바닥을 박박 닦는 것으로 칠 년이라는 시간을 청소했다. 그 방에 룸메이트가 들어오던 날, 너는 삶이 가져온 변화에 치를 떨며 네 방에 들어박혀 있었다.

너의 룸메이트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네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에 조용히 일어나, 네가 아직 침대에 있을 때 조용히 샤워를 했다. 네가 아직 샤워를 할 때 조용히 집을 나섰고, 네가 아직 귀가하지 않은 시간에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네가 아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잠이 들었고, 네가 새벽 두 시에 깜박 눈을 뜨면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기척을 냈다. 그는 지나칠 정도로 조용했지만, 너는 그를 끝없이 의식했다. 굳이 들추지 않아도 머릿속에 늘어붙

어 있는 어떤 걱정처럼, 그는 너의 세계에 존재했다. 그가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너는 그의 부재를 의식했다. 그의 부재가 곧 그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남겨놓은 건 잠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짧은 메모 한 장이 전부였다. 새벽 두 시 반, 너는 유령처럼 흐느적거리며 냉장고를 열고 차가운 생수를 꺼내 벌컥벌컥 마셨다. 네 방으로 돌아가려던 너의 손끝이 그의 방문에 닿은 건 우연이었을지 몰라도, 방문을 연 건 너의 의지였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불을 켜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완벽한 침묵, 완벽한 어둠, 완벽한 부재 속에서, 너는, 놀라지 않은 자신을 놀라워하며 천천히 양을 세었다. 한 마리는 열 마리가 되고, 열 마리는 오십 마리가 되고, 오십 마리는 구십구마리가 되었다. 양들은 마지막 한 마리를 찾기 위해 텅 빈 방을 뛰어다녔다.

그토록 친밀했던, 그토록 길었던, 그토록 많은 것을 남겨둔 연인과의 시간이 갑자기 끝났을 때, 네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모든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었다. 세상의 모든 것과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격리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이었다. 눈길이 닿고 손길이 닿고 마음이 닿는 곳마다, 장벽을 치고 벽을 올리는 일이었다. 말을 건네지도 않고, 노래를 부르지도 않고, 춤을 추는 몸짓도 하지 않는 일이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언가는 또 누군가는 머물다 사라졌다. 그리고 그 끝에서 너를 기다린 것은, 너의 기대와 달리, 또 한 번의 묵직한 이별이었다. 너는 룸메이트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고, 그가 어디로 떠났는지 몰랐지만, 그는 부재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그의 존재를 증명했다. 너의 육체, 너의 정신, 너의 비밀은, 공기처럼 바람처럼 먼지처럼 세상과 맞닿아 있어야 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너는 살아 있었다.

이제 너는 당음을 그리워한다. 만남의 포옹, 이별의 키스, 심장을 파고드는 상처의 애절함을 꿈꾼다. 룸메이트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눈길과 손길과 마음이 닿지 않는 세상에 영원히 간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백 마리의 양들을, 삶의 헛된 그림자를 쫓게 되리라는 두려움이 너를 흔든다. 새벽 햇살이 네모난 창문 틈으로 스며들 때까지, 너는 전화기를 붙잡고 텅 빈 방구석에 앉아,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다듬는다. 말 한마디 제대로 섞어본 적 없었던 그의 마음 한켠에 살짝 닿기 위해.

초심을 간직한 후보를 찾습니다, ‘정직한 후보’

*영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마비된 사이, 시나브로 계절이 바뀌었다. 햇살이 내리쬐는 공원과 임시로 문을 닫은 공공시설의 풍경에서는 이질감이 느껴진다. 여전히 공공 열어붙은 문화예술계에는 언제쯤 봄꽃이 피어오를 수 있을까. 몇 주째 신작이 거의 개봉하지 않아 순위에 변함없는 영화 박스오피스와 텅텅 비어 있는 영화관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난다.

그런데 전 대륙을 장악한 사상 초유의 전염병 시국 속에서도 곳

곳이 개봉해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가 있다. 장유정 감독의 '정직한 후보'는 4·15 총선을 겨냥한 작품으로, 2월 12일 개봉해 15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을 불러 모았다. 코로나19의 파괴력을 생각할 때, 기적 같은 일이다. 게다가 '라미란'이라는 중년의 여배우가 주연을 맡은 작품이 거둔 성과이기에 그 의미는 더 크다. 라미란은 4선을 노리는 국회의원 '주상숙'으로 분해 대체 불가한 에너지로 영화를 힘있게 이끌어간다. 장유정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동명의 브라질 영화

(O Candidato Honesto, 2014)를 각색하면서 처음부터 라미란 배우를 점찍어 두고 주인공을 여성으로 바꾸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영화에 큰 재미와 볼거리를 더했다. 가령, 백수나 다름없는 남편이 주상숙을 '내조'하면서 벌어지는 코믹한 사건들이나 남편의 혼외 자식을 자기 아들처럼 키운 주상숙의 모성애가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 등은 주인공이 여성이기에 가능한 설정이다.

3선 의원 주상숙은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시민에게 공개된 모습과 그녀의 실상은 딴판이다. 겉으로는 20평대 아파트에서 남편과 배드민턴을 즐기며 소시민적 삶을 사는 척하지만 사실 그녀는 풀장이 있는 저택에서 가정부를 두고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 가까운 사람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뒤를 봐주는 기업가와 협잡을 하거나 다른 후보와도 모종의 거래를 하는 등 주상숙의 생활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 따위는 없어 보이는 그녀에게도 외부에 알려질까 노심초사하는 비밀이 있다. 주상숙은 처음 국회의원이 될 때부터 사회에 전 재산을 기부하고 돌아가신 할머니, '김옥희'(나문희) 여사의 뜻을 기리겠다는 구호를 앞세워 왔으나 사실은 할머니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선거 전 날 쫓겨 한 장만 남기고 사라진 할머니 때문에 생긴 일이지는 했으나 주상숙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한다. 어쩔 수 없이 깊은 산 속에서 '올드보이' 생활을 하게 된 할머니는 손녀가 제발 착하게,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늘에 간절히 기도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다음날부터 주상숙은 할머니의 바람대로 거짓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정직한 후보'가 된다. 영화는 뒤죽박죽이 된 주상숙의 생활을 보여주는데, 유쾌한 코미디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매우 씁쓸하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상대로 늘어놓는 거짓말들, 크고 작은 비리와 범죄들이 끝도 없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대중들 앞에서는 '나는 서민의 일꾼'이라고 외치지만 속으로는 '서민은 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주상숙의 이중성은 권력과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현실의 정치인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말 영화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면, 정치인들의 속마음을 여과 없이 알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계속 믿고 힘을 실어줄 재선 의원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주상숙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대학생 때 대기업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할머니를 위해 소송을 걸었고, 그 재판에 승소하면서 정계에 진출한다. 처음에는 정의롭고 깨끗한 인물로 많은 지지를 얻기도 했으며, 지금 그녀의 선거캠프에 있는 이들은 대부분 그때의 주상숙을 기억하고 있다. 극의 후반부, 주상숙을 하늘처럼 떠받들던 보좌관 '박희철'(김무열)은 주상숙에게 잔 다르크 같았던 과거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나서야 주상숙은 냉정하게 현재의 자신을 진단해 본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로 결심한다. 주상숙과 마찬가지로, '초심'만큼 정치인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단어는 없을 것이다. 코미디라는 외피 때문에 통렬한 맛은 경감되었지만, 현실의 정치판을 떠올리게 하는 여러 사건과 인물들이 등장해 몰입감이 높은 작품이다.

코로나19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눈앞에 다가온 총선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직한 후보'에는 신발의 이미지가 여러 번 나온다. 낮은 구두와 운동화가 상징하는 것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많이 걷고 뒀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를 찾을 수 있기를, 그런 후보가 당선되어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게 되기를 김옥희 여사처럼 간절히 기도해본다.

위원회 뉴스 · 위원 동정

위원회 뉴스

2020년도 제1차 사회공헌활동 실시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3월 4일 제1차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30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전담중재부 지정 운용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코로나19 관련 조정·중재신청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코로나19 전담중재부를 지정했다. 전담중재부는 3월 6일부터 운용되고 있다.

계간 <언론중재> 봄호 발간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3월 30일 계간지 「언론중재」 봄호(통권 154호)를 발간했다. <Focus on Media>에서는 '유튜브 선거와 심의, 그리고 표현의 자유'로 안명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팀장의 「선거보도심의제도 운영의 실제와 입법·정책적 제언」 등의 기고가 수록되었다.

2019년도 시정권고사례집 발간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3월 30일 2019년도 시정권고 현황, 주요 사례 및 시정권고 전체 목록을 담은 <2019년도 시정권고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정보자료실 코너에서 전자책(e-Book) 및 PDF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위원 동정

중재위원 사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중재위원직을 사퇴한 중재위원은 아래와 같다.

중재부	성명	재임 중 소속 직위	사퇴 일자
서울제1중재부	진형혜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	2020. 2. 7.

주정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를 후보자 초청 토론회> 사회

주정민 위원(광주중재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2월 28일 CMB광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를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사회자로 참석했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언론중재

언론분쟁 예방하는 기사 쓰기,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언론분쟁.

언론사가 이를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취재 및 기사 작성 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인격권 침해 관련 판결과

위원회 조정·중재 절차에 대해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다양한 언론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기반 매체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언론인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위원회가 진행하는 전체 교육에서 언론인 대상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6.8%에서 2019년 13.3%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언론인 대상 교육에는 위원회 전문 강사가 언론사를 직접 찾아가 언론분쟁 및 인격권 침해 예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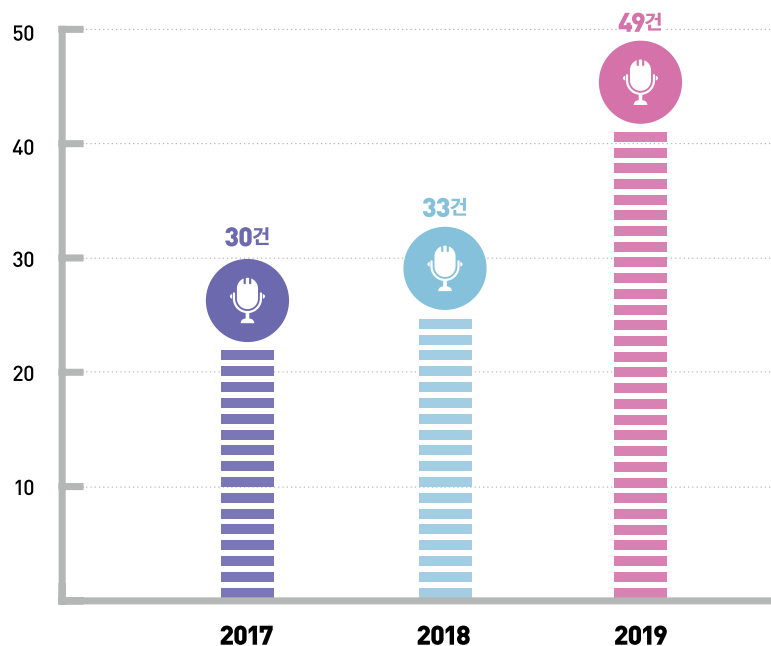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 교육’, 전국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언론인 전문 연수’,

각급 언론 유관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지역 언론인 워크숍’이 있습니다.

모든 언론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디지털 시대의 언론분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T.02-397-3061~7)에 문의해주세요!

최근 3년간 언론인 대상 교육 실시 횟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1호 논문 공모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1호에 수록할 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공모 분야

- 연구논문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전반 (언론법제 관련 판례 평석 포함)

응모 자격

-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 관련 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등

제출 마감

- 연구논문 제출 마감
2020년 5월 13일(수) 24:00까지

논문 접수

- 이메일 접수
journal@pac.or.kr

-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하시거나 연구팀(02-397-3042)으로 문의바랍니다.
-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이며, 올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